

주간농업·농촌동향 우수 귀농인력의 농어촌뉴타운 유치 사업

2010.09.13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9월 8일 발표한 “우수 귀농인력의 농어촌뉴타운 유치 사업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추진배경

- 농어업이 고령·영세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, 향후 승계인력도 부족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
-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, 교육·복지 및 문화여건이 도시에 비해 낮아 도시거주 젊은 인력의 농어촌 유치에 애로
 - 농촌이주서 생활환경 불편(37.1%), 수입부족(18.5%), 친교관계 단절(15.8%) 등을 염려
- 젊은 도시민이 농업기술이 있어도 자금부족 등으로 귀농에 어려움 등 호소
 - 귀농가구 증가 추세 : '00(1,154가구) → '04(1,302) → '08(2,218) → '09(4,080)
 - 신기술을 가진 고소득 농업인 증가도 귀농에 탄력(1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 : '08(7,681가구) → '09(9,054가구, 18% 증가)
 - 도시 젊은 인력을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키 위해 맞춤형 영농 기술, 소득, 교육, 문화, 복지 등 종합지원 필요

□ 추진계획

- '09년부터 '12년 상반기 입주완료 예정으로 5개소 700가구 추진
 - 충북 단양(분양 100가구)
 - 전북 장수·고창(각각 분양 100가구)
 - 전남 장성(분양 70가구, 임대 130가구)

- 전남 화순(분양 50가구, 임대 150가구)
- 금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'12년 상반기까지 입주 완료

○ 전남 장성뉴타운은 '12년 3월 입주 예정

- 기반공사 착공('10년 6월), 현재 선착순으로 입주자 선정 및 계약실시(200가구중 58가구: 임대 85㎡ 4가구, 분양 100㎡ 54가구)

○ 충북 단양 등 4개소는 '10년 9월부터 '10년 12월에 분양공고

- 충북 단양(분양 100㎡ 40세대, 85㎡ 60세대) : '10년 9월
- 전북 장수(분양 85㎡ 41세대, 100㎡ 59세대) : '10년 9월
- 전북 고창(분양 100㎡ 100세대) : '10년 9월
- 전남 화순(분양 : 100㎡ 50세대, 임대 100㎡ 150세대) : '10년 12월

□ 자격요건

○ 농어촌뉴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갖추고자 하는 자를 말함.

-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 만25세~만55세(고령 농어업인 도시거주 귀농희망 자녀 포함)
-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(경영규모, 연령 조건 예외)
- 해당지역 거주 만 25세~만55세 농어업인
- 농수산물 가공·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(경영규모조건 예외)
- 본 사업에 대지 및 가옥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(경영규모, 연령 조건 예외)
 - 기본자격의 일정규모는 벼농사, 잔디 등 1.0ha이상, 과수류 0.2ha 이상, 화훼 0.1ha이상, 시설채소 0.2ha이상, 특작 0.5ha이상, 한우 15두, 젓소 10두, 돼지 160두, 양계 8천수 이상 등

□ 입지여건 및 지원내용

○ 교육, 문화, 의료 여건

- 접근이 양호한 교육여건 구비(인근지역 · 읍면소재지에 **기숙형공립고, 유명 고교** 위치)
 - 단양고(충북 단양), 장수고(전북 장수), 고창고(전북 고창), 장성고 · 문향고(전남 장성), 능주고(전남 화순)
- 단지내에 **커뮤니티센터** 설치(마을회관, 보육시설, 취미실, 세미나실 등)
- 면 · 군 **평생학습센터** 등에서 다양한 문화 · 교육 · 취미 프로그램 운영(풍물교실, 웰빙 요가, 베드민턴, 외국어 등)
- **구급, 의료 시설** 구비(단지에서 승용차로 2분~20분 이내)
 - 단양 서울병원(12km), 장수 보건의료원(5km), 고창 종합병원(1.5km), 장성 효사랑병원(4km), 화순 전남대학병원(11km)

○ 주택공급 : 저렴한 주택공급

- 기반시설 공사비 중 보조사업비는 분양가격에서 제외
 - 분양가구당 평균 55백만 원 혜택, 이외에 일부 지자체는 택지비용 미포함
- 주택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시 상한액 50백만 원 용자지원(연리 3%,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)
 - 주택은 단층, 복층, 테라스 주택형으로 공급

○ 맞춤형 영농기술 지원, 영농소득 창출 지원

- 입주전, 입주후 등 단계별 영농 지원 프로그램 실시
- 농기계 임대, 전문지도사를 멘토링 등 기술 컨설팅 실시
- 전문경영인 양성 교육, 법인 운영 지원 등
- 창업(후계) 농업인 육성(농지구입, 영농시설, 운영자금으로 최대 2억 원 용자(연리 3%, 5년거치 10년 상환))

- 기타 지자체별로 영농정착, 농업진흥기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

○ 기타 농업인 등에 대한 혜택

- 농어촌지역 **영유아 양육비** 지원
 - 0~4세 : 정부보육료 단가의 35~70% 지원(134천 원~383천 원/월)
 - 5~6세 : 정부보육료 단가의 100% 지원
 - ※ 정부보육료 단가(0세기준) : 383천 원/월, 시설이용시 70%, 시설 미이용시 35% 지원
- 농어촌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**건강보험료**의 50% 경감 지원(비농업인은 22%)
- 농업인에 대한 **연금 보험료**의 50% 지원
 - 기준등급(10년) 790천원/연, 기준등급 초과시 정액지원
- 농업인의 **농작업 안전공제** 가입자에 대한 50% 보조지원
 - 가입비 88천 원/년의 50%인 44천 원 보조(사망시 60백만 원보장)
- 농어촌지역고교 졸업생(본인, 부모 농어촌거주)은 **특별전형**을 통해 대학진학 가능
 - 정원 외 4%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 운영
- 농어촌 출신 **대학생 학자금** 무이자 용자 지원
 - 등록금 범위 내에서 용자(졸업 후 1년 거치 무이자 상환)
- 농어업인 **고교생 자녀**에 대한 학자금 지원
 -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주간농업·농촌동향 시장개방 대비 축산분야 비용절감 대책

※ 본 자료는 농림수산식품에서 9.10일 발표한 “한-EU FTA 등 시장개방 대비, 축산분야 비용절감 대책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○ 주요 추진방안

-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 자율 암소도태 추진
- 농가가 공유할 수 있도록 비용절감 정보공유방 개설
- 후계인력 양성
-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연구개발 등

○ 축종별 낭비요인을 발굴하여 '14년까지 최대 30%까지 비용절감

- 한우: ('08) 5,213천 원/두 → ('12) 4,170(△20%) → ('14) 3,446(△34%)
- 우유: ('08) 585원/ℓ → ('12) 523(△10%) → ('14) 491(△16%)
- 육계: ('08) 1,097원/kg → ('12)877(△20%) → ('14) 823(△23%)

□ 주요내용

○ (한우) 출하시기 3개월 단축 및 조사료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사료비 절감

- 출하 전(22~23개월, 25~26) 초음파 육질 검사를 통해 적기출하 (출하시기 2~3개월 단축, 30→27개월령)
- 소비자의 웰빙(저지방)식품 선호에 맞춰 쇠고기 등급판정 제도 개선('10)

○ 청보리 등 우량 종자 보급 및 조사료 품질향상 등으로 조사료 급여 확대('09 : 40% → '10 : 60%)

○ (돼지) 질병근절 및 시설현대화, 적정 사료량 급여 등으로 비용 절감

- 썬코백신 집중으로 MSY(시장 출하두수) 향상 : 15.2두 → 22(증 6.8두)

- 돼지 발육상태에 따른 적정 사료량 급여로 사료효율 제고

· 사료급여량 : (부진농가) 356kg/두 → (우수농가) 290(감 18.5%)

○ (닭) 소형닭(1.5kg) 위주의 생산체계를 대형닭(2.5kg이상)으로 전환하여 부분육 생산 증대 및 사료비 절감

- 국별 출하제중(kg) : 한국 1.5, 일본 2.7, 중국 2.5, 미국 2.1

○ (유통구조) 대형패커 육성을 통한 도축·가공·유통단계를 일원화하여 유통단계로 발생하는 유통비용 절감 도모

- 현행 5단계의 유통구조를 4단계로 축소(두당 9천 원 절감 효과)
- 대규모 물량을 바탕으로 공세적 마케팅 전략 추진

○ 위생·안전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

- '09년 도축장 106개소를 '15년까지 40여개소로 구조조정